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세무조사 면제… 中소는 2년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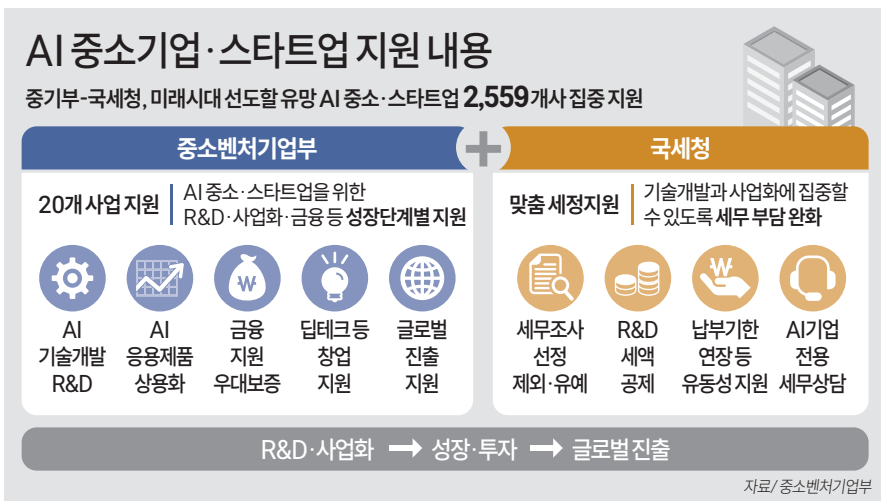
중기부-국세청, 2559개 기업 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과정서
필요한 정책·세정지원 기반 마련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AI 관련 중소기업은 신청시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지방 중소기업은 3년) 유예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 2559개사를 집중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 지원사업에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연계해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AI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연계 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 등을



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 지원을 연계하는 부처 협업 모델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관련 R&D 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

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 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이 폭넓게 포함된다.

국세청은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AI 스타트업은 기술개발 초기부터 우수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AI 기업이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산업·기업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 개별 기관의 지원을 각각 받는 것을 넘어 기술개발(R&D)·사업화 → 성장·투자 →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인 만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노인터내셔널, 트리니티와 ‘숙박 시너지’

인니, 일본 등 해외 호텔·리조트 확대
트리니티항공 취항지와 접점 형성
가격경쟁 속 항공·숙박 연계 ‘주목’

소노인터내셔널이 해외 호텔·리조트 사업을 잇따라 확대하면서 계열사인 트리니티항공 취항지와의 사업 접점이 뚜렷해지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간 운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사가 추진해온 항공·숙박 연계가 차별화 전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의 ‘어웨이 발리 레기안 카마킬라’를 ‘소노벨 발리 레기안’으로 리브랜딩해 공식 개장했다. 인도네시아에 소노 브랜드를 처음 선보인 것으로, 트리니티항공이 운항 중인 청주~발리 노선과도 접점을 갖는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일본 ‘소노문 나고야’도 개장했다. 트리니티항공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인천~나고야 노선을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호텔·리조트 운영사 ‘크로스 호텔앤리조트’의 태국·인도네시아 법인 지분 100%를 인수해 방콕·치앙마이·파타야·발리 등 15개 사업장, 1507개 객실을 확보했다. 오는 2029년까지 10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트리니티항공의 방콕·치앙마이·발리 등 주요 취항지와 겹친다. 소노인터내셔널이 지난 2024년 인수한 프랑스 파리 ‘호텔 담 데 자르’도 트리니티항공의 인천~파리 노선과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양사의 연계 이벤트는 국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항공권과 계열 호텔 숙박 혜택을 직접 연계한 상품이나 이벤트는 아직 없다.

항공·숙박 연계가 주목되는 배경에는 LCC 업계의 치열한 운임 경쟁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제선

단위당 운임은 전년 동기 대비 제주항공 13.5%, 진에어 15.8%, 에어부산 19.9% 각각 하락했다. 대한항공도 5.8% 떨어졌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와 항공기 임차료,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항공기 도입·정비·인력 확충 비용도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3분기에도 증권가 전망치 기준 335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숙박 연계는 가격 할인에 의존한 고객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운임 방어와 수익성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9월 구글 항공편 검색 기준 트리니티항공의 인천~파리 왕복 이코노미석 운임은 132만 7400원으로, 대한항공(215만 6000원)보다 약 38% 낮았다. 트리니티항공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연료 효율이 개선된 기체를 도입해 장거리 노선의 편당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중진공, 중소 제조AI 강사·실무인력 양성

오늘부터 교육 과정 참여자 모집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뒷받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AI 강사육성 과정’과 ‘제조AI 실무과정’을 신설하고 12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제조AI 강사육성 과정’은 AI·디지털 전환(DX) 분야 강사와 제조 현장 전문가를 각각 제조AI 전문 강사로 양성하는 두 개 교육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AI·DX 전문가 제조AI 강사 전환 과정’(11월 16일)은 제조 경험이 부족한 AI·DX 분야 강사를 대상으로 제조AI 사례 기반의 제조데이터 분석·해석 실습을 제

공한다. ‘제조 현장 전문가 제조AI 강사 전환 과정’(11월 18일)은 AI 적용 경험이 부족한 제조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문제를 데이터와 연계해 AI 적용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이다.

‘제조AI 실무과정’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두 개 교육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진공은 지난해 ‘생성형 AI 활용 업무 혁신 클래스’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AI 교육을 제조 분야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반영해 2027년 정규과정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조AI 전문 강사와 현장형 AI 실무인력을 함께 양성에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철강업계, 가격 인상에도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이하’

비용부담 지속에 가격인상 효과 상쇄
포스코 철강 판매량, 전년비 1.6% ↑
현대제철 판매량, 400만톤으로 줄어

국내 철강업계가 하반기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3분기 수익성이 전분기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원재료비 부담이 이어지고 판매량과 비용 구조 등이 엇갈리면서 개선 폭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상상인증권에 따르면 포스코 국내 철강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3398억원, 현대제철은 798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분기 대비 각각 55.1%, 38.2%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 8~9월 증권가 전망치인 4300억원, 1156억원보다 각각 20% 안팎, 30% 이상 낮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현대제철은 932억원보다 14.4% 감소하고, 포스코도 별도 영업이익 5850억원을 밑돌

전망이다.

양사는 상반기 높아진 원가를 제품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해 하반기 판가 인상에 나섰지만 3분기에도 원재료비 등 비용 부담이 이어지며 가격 인상 효과를 일부 상쇄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판매량 차이가 양사의 실적 개선폭을 갈랐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4분기 대보수를 앞두고 생산·판매량을 늘리면서 판가와 물량이 동시에 개선됐다. 하나증권은 3분기 탄소강 평균판매가격(ASP)을 톤당 98만 9000원으로 추정했다. 전분기보다 2.8% 상승한 수준이다. 철강 판매량도 849만 3600톤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현대제철은 판매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3분기 판매량은 약 400만톤으로 지난 8월 전망치 424만톤보다 20만톤 이상 적다. 판재류는 275만톤으로 전분기 대비 10.4%, 봉형강류는 125만톤으로 9.

0% 감소할 전망이다. 판재류는 현대차의 지난 8월 전면 과업으로 약 5만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데다 중국산 철강재 유입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고, 봉형강은 여름철 비수기와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비용 구조도 변수다. 이재운 산업연구원은 현대제철이 비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전력비와 탄소배출권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현대제철이 기존에 확보한 탄소배출권 물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안다”며 “보유 물량의 여유가 타이트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4분기 현대제철은 판매량 회복과 자동차강판·후판 가격 인상분의 온기 반영으로 수익성 개선 폭이 커질 전망이다. 3분기 원화 강세가 시차를 두고 원가에 반영되면서 원료 투입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혜은 기자



대동모빌리티는 이달 초 대구 성서산단 내 ‘대동모빌리티 슈퍼스테이션’을 열었다. 개소식에서(왼쪽부터)성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정연주 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수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시 지형제 기후에너지환경국장, 대동모빌리티 박경준 모빌리티사업본부장, 대구테크노파크 백광훈 본부장, 이슬루션 권진근 대표, KT 류재성 대구지역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모빌리티

대구서 에너지 자급형 전기 스쿠터 운영

대동모빌리티, 국내 첫 시범 운영

대동모빌리티가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에너지 자급형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11일 대동모빌리티에 따르면 대구 성서 산업단지에서 2031년까지 특정 지역 내 단거리 이동 수요에 최적화한 공유 모빌리티 사업 모델 실증에 나선다.

전기 스쿠터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배터리를 충전해 환경친화적이다.

이번 실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원해 성서산단의 에너지

자립과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총사업비 312억원 규모의 ‘대구성서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일환이다.

대동모빌리티는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를 맡아 전기 스쿠터 공급부터 배터리 교환 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운영까지 담당한다.

대동모빌리티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실제 생활권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에너지 자급형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의 이용 패턴과 운영 효율을 검증하고 특정 생활권에 적합한 모빌리티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